



# 극동러시아 동향 리포트

## Contents

- 통계로 본 이슈
  - 올 1~7월 러시아 철도 물동량, 전년 동기대비 3% 증가
- 이슈페이퍼
  - ‘러북 정상회담’, 동북아 관심사로 부상…남북러 3각협력 추진동력 될 듯
-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
  - COSCO 선박, 일 토마코마이항에 세 번째 입항
  - 러시아와 일본, TSR 노선 건설 합의
  - APL, 한-일-러 직기항 서비스 개시
  - 캄차트카 수산물 가공 공장 일부 완공
- 주요 통계
  - 2018년 1~6월 캄차트카 주 수출품목



한국해양수산개발원  
KOREA MARITIME INSTITUTE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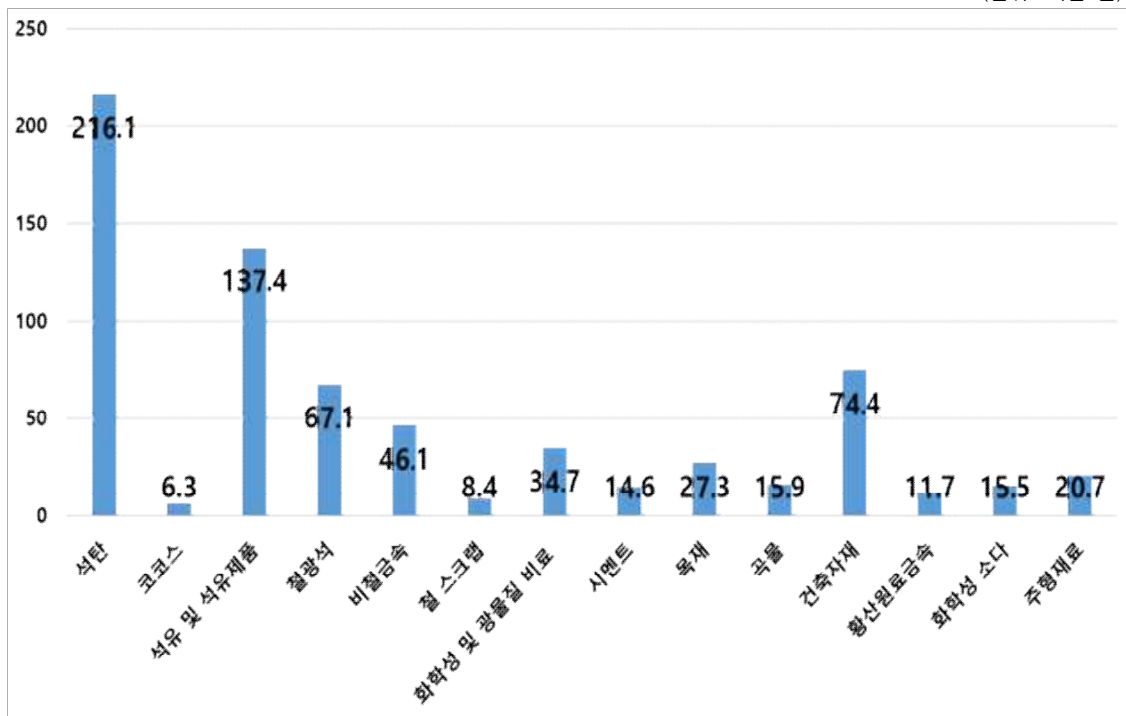


## 통계로 본 이슈

### 올 1~7월 러시아 철도 물동량, 전년 동기대비 3% 증가

2018년 1~7월 화물별 러시아 철도 물동량

(단위: 백만 톤)



자료: <http://www.infranews.ru>(검색일: 2018년 8월 20일)

- 2018년 1~7월 철도 물동량은 총 7억 4,94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3% 증가했음
  - 석탄 물동량은 총 2억 1,610만 톤으로 전년 동기대비 4.9% 증가했음
  - 곡물은 1,590만 톤(+51.8%), 철광석은 6,710만 톤(+5.1%), 목재는 2,730만 톤(+3.2%)으로 전년 동기대비 증가했으나, 석유 및 석유제품은 1억 3,740만 톤으로 변동사항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



- 코코스 물동량은 630만 톤(-3.2%), 시멘트는 1,460만 톤(-5.5%), 건축자재는 7,440만 톤(-4.2%) 등으로 소폭 감소했으나, 올해 1~7월 총 수송량은 1조 5,400억 t-km로 전년 동기대비 4.6% 증가했음
- 러시아철도공사는 9월 물동량이 8월보다 약 2%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음
  - 중국의 석탄생산 규제로 인해 러시아 석탄생산량이 증가한 점도 물동량 증가에 영향을 끼쳤음
  - 9월 중 약 700km 구간에 대한 개보수 공사가 마무리됨에 따라 환적에 지장을 주었던 낙후된 인프라 문제가 해결되기 때문이라고 설명함
  -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화차 부족 문제는 작년에 이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됨
  - 이러한 현상은 부품 부족 문제로 기존 화차에 대한 보수 작업이 어려워, 신규 화차로의 교체작업만 이루어졌기 때문임

■ 참고자료 : 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zheleznaya-doroga/52102-pogruzka-na-seti-rzhd-za-7-mesyacev-2018-goda-vyroslo-na-3/>(검색일: 2018년 8월 20일)

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zheleznaya-doroga/52210-putin-poruchil-vklyuchit-rasshirenie-bama-i-transsiba-v-magistralnyj-plan-infrastruktury/>(검색일: 2018년 8월 20일)

<http://infranews.ru/logistika/zheleznaya-doroga/52197-rzhd-planiruyut-rost-pogruzki-v-sentyabre-vyshe-2/>(검색일: 2018년 8월 20일)

[http://www.ksg.co.kr/news/main\\_newsView.jsp?bbsID=news&bbsCategory=KSG&categoryCode=all&backUrl=main\\_news&pNum=118616](http://www.ksg.co.kr/news/main_newsView.jsp?bbsID=news&bbsCategory=KSG&categoryCode=all&backUrl=main_news&pNum=118616)(검색일: 2018년 8월 21일)

김엄지 연구원



051-797-4776, [umjikim@kmi.re.kr](mailto:umjikim@kmi.re.kr)



## 이슈페이퍼

### ‘러북 정상회담’, 동북아 관심사로 부상…남북러 3각협력 추진동력 될 듯

- 최근 극동개발부가 발표한 제4차 동방경제포럼 세부 프로그램이 50개 이상 준비된 것으로 알려짐
  - 가장 먼저,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참석하는 총회(플래너리 세션)‘극동: 가능성의 경계를 넓히며’를 주축으로 러시아, 중국, 인도, 한국, 일본, 중동 및 유럽 국가들이 참가하는 7개 국가의 개별 비즈니스 다이얼로그 프로그램이 있음
  - 이외에도 △주민 생활조건 조성, △새로운 지정학적 상황 및 아시아의 정치적 경제, △극동의 분야별 우선순위, △글로벌 극동: 국제 협력 프로그램의 4개 분야에서 전문가 토론이 진행될 예정임

#### 4개 분야의 전문가 토론(극동개발부 발표내용 요약)

- ‘주민 생활 조건 조성’ 세션
  - 극동의 인구통계, 보건, 문화, 교육 및 과학, 주택 및 도시 환경 분야의 국가 프로젝트 실행을 논의하며, ‘극동 헥타르’프로그램과 연계해 극동 노동시장 개선 전망 및 부동산 개발 방법론 등이 집중적으로 협의될 예정
- ‘새로운 지정학적 상황 및 아시아의 정치적 경제’ 세션
  - 러시아의 가능성을 주제로 영상토론과 발다이 클럽의 세션이 진행됨
- ‘극동의 분야별 우선순위’ 세션
  - 임업단지, 농업, 광물자원 채굴 및 가공, 어업, 석유가스 처리, 해양수산업, 지질 탐사,



보석산업 등 개별 분야들의 산업 경제력이 논의함

■ ‘글로벌 극동: 국제 협력 프로그램’ 세션

- 극동지역과 인접 국가들의 경제 협력, 아태지역에 있어서 극동 교통회랑의 역할, 블라디보스토크 국제 의료 클러스터 조성, 아태지역 통합 및 에너지 협력, 세계 해양 자원 개발 등이 다뤄짐

■ 러 정부는 이번 4차 동방경제포럼에는 여러 국가의 정상들을 비롯해 유수의 글로벌 기업 대표, 외국인 투자자 등 약 6,000여 명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하며 역대 포럼 중 사상최대 규모가 될 것으로 전망함

- 이와 관련해, 아베 신조 일본 수상이 일찌감치 참석을 확정했고, 또한 역대 포럼에 단 한번도 참석하지 않았던 중국 시진핑 주석이 주빈으로 초청된 점이 특이한 사항이라 할 수 있음

- 이외에도 인도 산업통상부 장관이 이끄는 기업사절단 및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 또한 초청받은 것으로 알려짐

■ 당초 기대를 모았던 남북 정상들이 나란히 포럼에 참석해 동북아 역내 다자회담과 남북러 3각협력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3개국 정상들 간의 합의문 체결 등의 현재까지 상황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보임

- 최근 러 측 언론보도 내용에 따르면 러시아 정부는 남북 정상을 대신해 남측은 이낙연 국무총리를, 북측은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대표로 보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힘

- 최근 국제사회는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북러 정상회담 뿐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, 아베 신조 총리와 북일 정상회담, 북중 정상회담 등 심지어 5자 회담 형태의 다자 회담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꾸준히 제기되어 왔음

■ 반면 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 보좌관은 김 위원장 방러 초청은 동방경제 포럼과 관계없이 여전히 유효하며 추후에 실무급에서 일정조율이 이뤄질 것이라



## 고 전함

- 러시아는 북한과 협력관계가 있는 강대국 중에서 아직까지 정상회담을 갖지 않은 유일한 나라로 꼽힘
-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에 세계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현시점에 러시아는 지역 문제에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됨
  - 게오르기 톨로랴 모스크바 국제관계대학교 교수 겸 러시아 아시아전략센터 소장은 최근 발다이 클럽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는 동북아에서의 역사적인 이해관계와 영향력이 적지 않은 바, 북러 정상회담이 갖는 의미는 매우 중요하다고 주장함
  - 북러 정상회담은 한반도를 둘러싼 현재의 역할 구조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, 한반도 문제 해결과정에서 중국이 차지할 가능성이 있는 독점적 위치와 역할을 희석시킬 수 있다고 덧붙임
- 동북아에서 러시아의 영향력이 확대되면 남북러 3각 경제협력의 실현가능성이 더욱 높아지면서 결국 3국 모두가 윈윈(win-win)할 수 있는 사업모델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질 수 있다면서 유엔 안보리 금지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강조함
  - 한국의 북방진출을 위해 러시아는 가장 핵심적인 협력대상 국가이나, 현재로서는 의향 및 약속 수준이고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것은 그리 활발하지 않은 수준임
  - 러시아가 좀 더 큰 목소리로 자신의 존재감과 한반도에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가면 한국이 좀 더 적극적인 행보를 보일 것이고, 북한 또한 물류, 지하자원, 노동력의 측면에서 러시아에 관심이 적지 않지만 현재는 모든 북러간 경제협력이 대북 경제 제재로 봉쇄돼 있음
- 최근 김 위원장은 푸틴 대통령에게 강한 러시아 건설에 보다 큰 성과를 바라며 북러 친선관계를 새 시대의 요구에 따라 더욱 발전시켜 나가길 희망한다는 전문을 보냄에 따라 북러 정상회담이 조만간 이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다시 나타나





고 있음

- 김위원장의 아버지인 김정일은 러시아에서 출생했고 러시아어를 알며 또한 여러 번 러시아를 방문했었던 반면, 김 위원장은 선대와는 달리 러시아를 모르기 때문에 더더욱 러시아와의 정상회담이 중요함
  - 김정은으로 대표되는 현재의 북한 젊은 세대들은 러시아와의 유대감이 사실상 없는 만큼 그들에게 러시아를 알려주기 위해서라도 양국 간 상호 교류할 필요성이 있음
- 남북러 철도연결 및 가스관 사업이 활발히 거론됐던 가운데 최근 문재인 대통령은 동아시아 철도 공동체 건설을 제안한 바 있음
- 이런 사업들이 다자간 관심 사업으로 논의되고 추진에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다면, 향후 북러 정상회담의 가치는 더욱 높아지고 이 회담을 통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

■ 참고자료 : <http://ru.valdaiclub.com/a/highlights/negozhe-ostavatsya-v-storone/>(검색일:2018년 8월 18일)  
<http://asiarussia.ru/news/20293/> (검색일: 2018년 8월 20일)

전명수 현지리포터(국립 블라디보스톡경제서비스대학교)

070-5044-9502, msjeon1976@gmail.com





## 극동러시아 주요 동향

### COSCO 선박, 일 토마코마이항에 세 번째 입항

- 북극해 항로를 운항 중인 중국 선사 COSCO SHIPPING Specialized Carriers의 일반 화물선 'TIAN HUI호(3만 8천 중량톤)' 가 8월 13일 일본 홋카이도 토마코마이항에 입항

토마코마이항에 입항한 일반 화물선 TIAN HUI호



(C)The Japan Maritime Daily. 日本海事新聞社 All rights reserved.

자료: 마리나비, <https://secure.marinavi.com/news/file/FileNumber/101741> (검색일: 2018년 8월 17일)

- 토마코마이항에 기항한 북극해 항로 운항 선박은 2017년 6월의 모듈 선박, 동 9월의 일반 화물선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
  - TIAN HUI호는 유럽산 사료원료 하역 후, 쿠시로(釧路)항, 하카타(博多)항을 거쳐



## 중국으로 향함

- COSCO 그룹은 2018년 7월 러시아 북극권 야말에서 산출된 LNG(액화천연가스)를 북극해 항로 동향(東向)을 통해 중국에 최초로 수송하는 등 북극해 항로의 이점을 적극 활용하고 있음
- COCSCO 그룹이 북극해 항로 취항 선박을 토마코마이항에 기항시킨 것은 2017년 9월의 일반 화물선(TIAN HUI호와 같은 선형)에 이어 두 번째
- 토마코마이항은 북극해 항로의 아시아 측 관문으로서 우위성이 높다고 판단
  - 2018년 COSCO는 유럽 발 아시아 행 북극해 항로에서 처음으로 중국 입항 전 환적 기항을 실시하고 있으며, 아시아 측 제1 기항지로 토마코마이항에 입항했음
- 8월 13일 TIAN HUI호 기항 시, 토마코마이항 관리조합 전임 부관리자인 사사키 히데로 씨 등이 본선을 방문해 환영 행사를 가짐
  - 토마코마이항 관리조합은 북극해 항로의 활용 가능성에 대해 검토 중이며, 북극해 항로 실용화 및 지속적인 토마코마이항 기항을 추진 중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secure.marinavi.com/news/> (검색일: 2018년 8월 17일)

한성일 부연구위원

051-797-4781, han@kmi.re.kr



## 러시아와 일본, TSR 노선 건설 합의

- 최근 러시아와 일본 정부가 시베리아 철도(TSR)를 이용할 양국 간의 화물 노선을 건설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짐
  - 문재인 대통령은 광복절 축사를 통해 동북아 철도 공동체(East Asia Railway Community initiative)를 제안했지만 일본은 대륙 철도 프로젝트에도 관심이 있는 것으로 보임
- 러시아-일본 외교 관계자 소식통에 따르면 올해 동방 경제포럼(East Economic Forum)이 개최될 즈음 TSR을 이용한 운송 경로에 대해 ‘현장 시험(Field test)’을 가질 예정이라고 함
  - 약 5~10개의 일본 물류기업이 본 현장 시험에 참여해 러시아-일본 양국 간 화물 운송 비용 및 시간, 관세, 수출 절차 등을 결정할 예정임
  - 또한 진동 여부, 온도 차이 및 기타 요인이 TSR을 이용해 유럽으로 운송되는 제품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할 계획임
  - 일본 총리는 동방 경제포럼에 참석할 예정이며,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정상 회담을 가질 예정임
- 현재 러시아-일본 간의 화물 이동은 복잡한 육로 운송 절차, 정보 부족 등으로 해상 및 항공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임
  - 도쿄에서 모스크바까지 해상을 통해 화물이 운송될 시 인도양, 수에즈 운하 및 지중해를 통과해야만 서유럽을 통해 돌아올 수 있으며, 이 운송경로는 약 53~62일이



### 소요됨

- 반면 러시아 극동에 위치한 블라디보스톡 항만으로 화물은 운송한 뒤 TSR을 이용하게 될 경우 20~27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, 이는 현재 소요되는 기간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임

### TSR 노선



자료: <http://www.hani.co.kr>(검색일: 2018년 8월 20일)

- 일본 재무부에 따르면 작년 일본에서 러시아로의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 수출이 각각 44%, 12%를 차지했으며, 러시아에서 일본으로의 석탄 및 LNG 수출이 각각 27%, 20%를 차지함
- 일본의 TSR에 대한 관심은 경제적인 이유와 더불어 러시아와의 경제 협력 강화를 통해 쿠릴 열도의 최남단 4개 섬에 대한 양국 간의 영토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바람도 내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
  - 러시아도 극동의 경제를 활성화 시키는 관점에서 이 제안에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짐
  - 일본의 한 언론 매체는 2016년 러시아 정부가 일본에 사할린과 홋카이도를 연결하는 대륙 횡단 철도를 TSR의 연장선으로 건설할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으며, 향후 일본과 러시아 간의 철도 협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힘



■ 참고자료 : [http://www.hani.co.kr/arti/english\\_edition/e\\_international/858396.html](http://www.hani.co.kr/arti/english_edition/e_international/858396.html)(검색일: 2018년 8월 20일)

신수용 전문연구원

051-797-4780, shinsy@kmi.re.kr

## APL, 한-일-러 직기항 서비스 개시

- OCEAN 얼라이언스 소속 싱가포르 선사인 APL사는 한국, 일본, 러시아를 기항하는 신규 주간 직기항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임
- 'JRX(Japan Russia Express)'로 알려진 동 서비스는 러시아 TG FESCO社와 공동으로 제공할 예정이며 일본 요코하마(Yokohama)에서 부산을 경유해 블라디보스톡(Vladivostok)을 기항할 예정임

한-일-러 직기항 서비스 경로



자료: <https://www.maritimeprofessional.com>(검색일: 2018년 7월 27일)

- 동 운항 서비스는 보스토치니(Vostonchny)-블라디보스톡-요코하마-시미즈(Shimizu)-나고야(Nagoya)-고베(Kobe)-부산-보스토치니 순임



- 동 서비스는 요코하마에서 보스토치니까지 7일, 요코하마에서 블라디보스톡까지는 9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- 또한 일본 고베에서 출항해 러시아 보스토치니와 블라디보스톡으로 운송되는 화물 운송시간은 각각 4일과 6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
- ‘JRX’ 서비스를 통해 보스토치니와 블라디보스톡으로 보내지는 화물은 시베리아 횡단철도(Trans Siberian Railway)로 환적돼 중부 러시아 및 유럽 지역으로 해상경로보다 빠르게 운송될 수 있음
- 시베리아 횡단철도 이용협회는 9월 11일부터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‘제4차 동방경제포럼’에서 본격 이루어질 예정임
-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통한 환적 경로는 기존 인도양을 경유하는 해상 경로대비 운송 시간과 비용을 상당히 단축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

■ 참고자료 : [www.apl.com](http://www.apl.com) (검색일: 2018년 7월 27일)

김병주 연구원

051-797-4784, [bjkim17@kmi.re.kr](mailto:bjkim17@kmi.re.kr)





## 캄차트카 수산물 가공 공장 일부 완공

- 캄차트카 선도개발구역의 ‘막시모브’ 수산물 가공 공장에 신선한 가공품 생산을 위한 냉동장비가 설치됨
  - 본 가공 공장 건설 프로젝트는 2017년 동방경제포럼에서 하이테크 기업 건설 프로젝트로 소개되었으며 극동개발공사의 협약에 의해 캄차트카 지역에서 실행되고 있음
  - 수산물 가공 공장은 2019년 2분기에 시운영될 예정으로 본 공장에 의해 약 377개의 새로운 일자리가 창출될 예정임

‘막시모브’ 수산물 가공 공장



자료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7948/>(검색일: 2018년 8월 20일)





- 건설될 가공 공장은 총 4개의 건물로 현재 2개의 건물이 완공되었으며 올해 9월 말까지 나머지 공장을 건설할 계획임
  - '막시모브' 가공 공장의 하루 생산 가능량은 냉동생선 약 135톤, 어란 약 40톤 등임
- 현재 캄차트카 선도개발구역에는 8개의 프로젝트가 완료되었으며 투자금액은 약 19억 루블임
  - 향후 캄차트카 선도개발구역에서는 투자금액 약 292억 루블 상당의 67개 프로젝트가 실현될 예정임

■ 참고자료 : <https://minvr.ru/press-center/news/17948/>(검색일: 2018년 8월 20일)

김은미 현지 리포터(국립극동교통대학교)  
051-797-4776, usea1004@gmail.com



## 주요 통계

2018년 1~6월 캄차트카 주 수출품목 (단위: 천 달러)

상품명	2018.01.01. ~ 2018.6.30.		
	합계	해외	CIS
<b>합계</b>	<b>327,264.5</b>	<b>327,243.8</b>	<b>20.7</b>
<b>생선, 갑각류, 문어, 오징어 등</b>	<b>296,050.3</b>	<b>296,050.3</b>	-
날생선 및 냉장보관 생선	1.9	1.9	-
<b>냉동생선</b>	<b>235,138.0</b>	<b>235,138.0</b>	-
연어	6,785.9	6,785.9	-
넙치	9,308.4	9,308.4	-
가자미	5,127.2	5,127.2	-
기타 넙치 종류	1,520.3	1,520.3	-
청어	2,676.9	2,676.9	-
<b>대구</b>	<b>50,433.9</b>	<b>50,433.9</b>	-
<b>명태</b>	<b>92,559.4</b>	<b>92,559.4</b>	-
농어	256.3	256.3	-
<b>캐비어</b>	<b>47,713.6</b>	<b>47,713.6</b>	-
생선 부산물	1,993.2	1,993.2	-
<b>생선살(생,냉장,냉동)</b>	<b>17,778.3</b>	<b>17,778.3</b>	-
<b>갑각류(게, 가제, 새우 등)</b>	<b>43,131.6</b>	<b>43,131.6</b>	-
<b>게</b>	<b>43,111.6</b>	<b>43,111.6</b>	-
연체동물	0.5	0.5	-
낙지, 오징어 및 문어	0.5	0.5	-
동물성 제품	0.5	0.5	-
알콜 및 비알콜 음료, 식초	5.3	5.3	-



가축용 사료 및 관련 기타 제품	8,603.3	8,603.3	-
동물성 밀가루, 해산물 및 생선류 가루(비식용)	8,603.3	8,603.3	-
<b>광석, 슬래그, 재</b>	<b>15,938.1</b>	<b>15,938.1</b>	-
<b>니켈 정광</b>	<b>15,938.1</b>	<b>15,938.1</b>	-
미네랄 연료, 석유 및 증유제품, 버튜미너스 물질, 광랍	2,812.8	2,812.8	-
역청에서 얻은 석유 제품(원유 제 외)	2,812.8	2,812.8	-
케로신	392.8	392.8	-
바이오 디젤 비포함 액체 연료	2,420.0	2,420.0	-
황 함유량 1 중량 % 이하, 바이 오 디젤 비 함유 액체 연료	1,854.4	1,854.4	-
황 함유량 1 중량 이상 2 중량 % 이하, 바이오 디젤 비 함유 액체 연료	565.6	565.6	-
세라믹 제품	20.7	-	20.7
철금속	1,760.5	1,760.5	-
철금속 폐기물 및 스크랩	1,760.5	1,760.5	-
선박, 보트 및 부유 구조물	2,073.0	2,073.0	-
크루즈, 관광용, 바지선, 화물선	2,073.0	2,073.0	-

자료: 극동 관세청 자료